

보도시점 2024.3.28.(목) 14:00 배포 2024.3.28.(목) 13:00

AI의 활성화와 안전한 활용 지원을 위한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

-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 활성화를 위해 쏘금융업계·학계·유관기관 참석
- 생성형 AI 특성을 고려한 규제방안, 양질의 데이터 확보방안 등 논의

24년 3월 28일(목),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발족식에서는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협의회 설립과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융권 AI 협의회」 발족식 개요】

- 일시·장소: '24.3.28(목) 14:00, 은행회관 16층 뱅커스클럽
-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금융혁신기획단장
 - (유관기관)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 (학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UNIST
 - (업계) 하나은행, 신한은행, KB증권,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생명, 현대해상, 하나카드 등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전세계적으로 생성형 AI 산업이 확대되고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성형 AI의 활성화 및 안전한 활용이 국제적으로도 논의되고 있다.”고 언급하고, “지난달 실시한 업권별(금융투자 - 은행 - 보험)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①망분리 규제*, ②양질의 데이터 확보, ③AI 거버넌스의 필요성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발언하며 “금융권의 생성형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을 협의회에서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 생성형 AI는 클라우드 등 인터넷 환경에서의 활용이 불가피하나, 망분리 규제로 인하여 금융회사는 인터넷을 통한 생성형 AI 접근이 어려운 상황

이어진 발족식의 발제에서 금융보안원의 김성웅 AI혁신실장은 “금융회사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경우 망분리 규제 준수 여부, 데이터 현지화 이슈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향후 협의회에서 논의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신용정보원의 이철흠 금융AI데이터센터장은 “생성형 AI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AI의 학습 등을 위한 양질의 데이터가 확보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며, 신용정보원 등이 보유한 공적 데이터를 우선 제공하는 방안 등을 예시로 소개하며 “향후 협의회에서 양질의 데이터 확보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발제 이후 자유토론에서 신한은행의 임은택 본부장은 “망분리 규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 금융당국이 깊은 공감을 해준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고, 향후 실무분과 등에 적극 참여하겠다.”며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현대해상의 정규완 본부장은 “릴레이 간담회에서 건의했던 데이터 관련 이슈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논의된다면 생성형 AI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하였다.

금융연구원의 박해식 부원장은 “금융업계에 생성형 AI의 활용이 확산되면 업무 효율화에 따른 비용절감,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확산, 내부통제 고도화 등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고 주장하면서도 “생성형 AI의 안전한 활용에 대한 논의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번 발족식 직후 AI 전문가 및 업계를 포함한 실무분과를 운영하여 금융권의 AI 활용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 [별첨] 1.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모두 발언
2. 「금융권 AI 협의회」 운영방안
3. 생성형 AI의 소개 및 활용시 규제 관련 논의사항 (금융보안원)
4. 생성형 AI와 양질 데이터 공급의 중요성 (신용정보원)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	책임자	과 장	신상록 (02-2100-2620)
		담당자	사무관	김정현 (02-2100-2696)

